10.19114/CKS.23.3.10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직면한 현실 (1)

- 미국산 프랑스 페미니즘의 탄생과 확산을 중심으로

강초롱*

1. 프랑스 여성운동 전통의 비판적 계승으로서의 MLF
2. MLF 내의 갈등과 분열
3. 프랑스 페미니즘에서 '프렌치 페미니즘'으로

〈국문초록〉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프랑스 페미니즘은 거의 언제나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 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이 현대 페미니즘 비평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프랑스 페미니즘계가 결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현대 페미니즘 담론에 등장하고 있는 프랑스 페미니즘은 진정한 프랑스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 페미니즘은 프랑스 내에서 발전해 온 페미니즘의 본질과는 무관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여성학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가공'된 인위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발전시켜 온 '프랑스 페미

* 서울대학교

니즘'과, 미국 여성학계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프렌치 페미니즘'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동의로부터 시작된 본 연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프랑스 페미니즘이 '프렌치 페미니즘'으로 왜곡되기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러한 왜곡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직면하고 있는 외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특히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미국 여성학계의 '접근 및 재현 방식'상에서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다.

프랑스 페미니즘이 왜곡되기에 이른 최초의 계기는 바로 70년대 프랑스 사회를 강타했던 여성해방 운동, 일명 MLF의 내적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68혁명을 기점으로 1970년대를 수놓았던 MLF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프랑스 여성운동의 계보를 잇는 동시에, 그것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했던 집단적 흐름이었다. 우선 MLF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프랑스 여성운동의 계보를 잇는 차원에서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권을 요구하며 선배들이 전개해 왔던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선배들이 취했던 주체 및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면서 가부장제의 근본적인 해체로 요약될 수 있는, 보다 급진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 MLF가 선택한 급진적인 투쟁 방식의 면모를 보여주는 특징들로는 남성들과의 분리주의 노선을 채택했다는 점을 비롯하여, 집단 혹은 체제 중심이 아닌 개개인이 주도하는 정치를 추구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가부장제의 철폐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연대 투쟁을 중시했던 70년대 초반과 달리 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MLF 내에 점차 분열과 갈등의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사회 체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 투쟁을 우선시했던 이들과, 가부장적 상징 체계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체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의 정립을 우선시했던 이들 간의 대립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MLF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여성들이

전자의 입장을 취했던 반면, 후자의 입장은 ≪정신분석과 정치≫라는 하나의 집단에 의해만 적극적으로 옹호되었다.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의 충돌이 가시화된 시점은 1974년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MLF는 본격적으로 분열의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이들 간의 분열은 앙투와네트 푸크라는 강력한 리더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추었던 ≪정신분석과 정치≫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출판 시장을 장악하고 그와 동시에 MLF의 발언권 역시 독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 단체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내적 사태가 미국 여성학계의 필요와 맞물리면서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 및 그것의 왜곡된 버전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약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미국 여성학계에 의한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 내용은 이론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동시에, 라캉 및 후기구조주의를 여성 조건의 유물론적 탐구보다 우선하고, 문학과 철학적 담론을 사회 및 역사적 담론보다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향의 페미니즘이라는 틀 속에 프랑스 페미니즘을 가두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 원인의 일부를 미국 여성학계의 무지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상당히 정형화된 방식으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에 왜곡을 가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왜곡 사태는 의도적 결과물로 간주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미국 여성학계의 의도로 우리는 우선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제간 연구가 80년대의 미국 내에서 자리 잡지 못했었다는 점, 둘째, 미국 학계가 외국 학문을 대할 때마다 일관되게 제국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점, 이 두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세 번째 원인으로 우리는 현대 페미니즘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역설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택한 일종의 자기방어적 전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여성학계는 단순한 무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택한 페미니즘 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프랑스 페미니즘의 실체와 너무나 다른 '프렌치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발휘하고 있는 커다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국제 여성학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미국 여성학계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탄생시킨 '프렌치 페미니즘'을 프랑스 페미니즘의 전부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주제어 : 프랑스 페미니즘, 프렌치 페미니즘, 여성해방운동, 정신분석과 정치, 페미니즘의 역설, 본질주의

1. 서 론

프랑스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의 언제나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 왔다. 프랑스 내에서 성 평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최초의 집단 운동의 양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던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해, 현대 페미니즘 담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저서인『제2의 성 *Le Deuxième Sexe*』이 출간된 1949년, 또한 프랑스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여성해방운동(Le Mouvement de Libération des Femmes, 이하 MLF)≫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 여성들이 걸어온 가부장제 해체를 향한 도전적 행보는 실제로 전 세계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소위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 3인방이라 불리고 있는 쥘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를 필두로 한 엘렌 식수(Hélène Cixous), 뤼스 이리가레(Luce Irigaray)의 사상은 페미니즘 문화 비평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해 주는 이론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이 현대 페미니즘 비평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프랑스 페미니즘계

가 결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현대 페미니즘 담론상에 등장하고 있는 프랑스 페미니즘은 진정한 프랑스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도대체 어떠한 맥락에서 프랑스 페미니즘계는 국제 페미니즘계가 중시하고 있는 프랑스 페미니즘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일까? 1970년대 MLF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물론에 입각한 페미니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성운동가, 크리스틴 델피(Christine Delphy)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다.

> "French Feminism" is a baffling topic for everybody, and it is no less so for feminists from France than for feminists from United States or Britain. (...) "French Feminism" is not feminism in France (...) Most feminists from France find it extraordinary to be presented, when abroad, with a version of their feminism and their country of which they had previously no idea.[1)]
>
> "프렌치 페미니즘"은 모두를 당황스럽게 하는 화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더 큰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출신의 페미니스트들보다는 프랑스 출신의 페미니스트들이라 할 수 있다. (...) "프렌치 페미니즘"은 프랑스 페미니즘이 아니다. (...)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이전에 생각해 본 적 없던 프랑스 페미니즘과 프랑스에 대한 견해가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프랑스 페미니즘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놀라고 있다.

델피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 페미니즘은 프랑스 내

1) Christine Delphy, "The invention of French Feminism : An Essential Move", *Yale French Studies - Another Look, Another Woman : Retranslations of French Feminism*, 87: 190-221, Yale University Press, 1995.

에서 발전해 온 페미니즘의 본질과는 무관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여성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가공'된 인위적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델피는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발전시켜 온 '프랑스 페미니즘(le féminisme français)'과, 미국 여성학계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프렌치 페미니즘(french feminism)'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페미니스트들 대부분 역시 델피와 같은 입장하에 '프렌치 페미니즘'을 미국 여성학계에 의해 왜곡된 상태로 전 세계에 유포되고 있는 프랑스 페미니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 페미니즘이 '프렌치 페미니즘'의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들은 '프렌치 페미니즘'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프랑스 페미니즘의 진면모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은 특히 프랑스 페미니즘의 역사를 올바로 기술하는 작업을 중시했다. 프랑스 여성운동가들은 이 작업을 오늘날 프랑스 페미니즘계가 처한 내적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중시했지만, 동시에 이 작업은 프랑스 페미니즘이 미국 여성학계의 프리즘을 거치면서 왜곡된 상태로 유포되고 있는 문제적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외부에 의해 왜곡되어 버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프랑스 페미니즘의 역사를 올바르게 복원하는 작업에 뛰어든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 온 시기는 바로 1970년대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68혁명을 계기로 본격화된 여성해방운동, 즉 MLF가 프랑스 사회를 강타했던 시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는, 프랑스 페미니즘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여성운동의 계보를 잇되, 가부장제의 근본적 철폐라는 보다 혁명적인 기치 아래 기존 여성운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갔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970년대는 프랑스 여성운동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이다. 현대 여성운동이 화려하게 꽃피웠던 시기였던 1970년대는,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여성운동의 역사상 여성주의 진영 내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분은 1980년대의 프랑스 여성운동이 70년대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전개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프랑스 페미니즘이 '프렌치 페미니즘'의 모습으로 외부에 확산되는 데 있어서 최초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프랑스 페미니즘의 국제적 왜곡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고자 했던 여성운동가들이 1970년대에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측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970년대의 여성운동 진영이 경험했던 내적 위기가 외적 위기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프랑스 페미니즘이 왜곡된 버전으로 국제 사회에 유포되기에 이른 최초의 원인을 이해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 페미니즘이 '프렌치 페미니즘'의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프랑스 페미니즘계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식 및 1970년대 MLF의 전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동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시작된 이번 연구는 오늘날 프랑스 여성운동계가 처해 있는 외적, 내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될 작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프랑스 페미니즘이 '프렌치 페미니즘'으로 왜곡되기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러한 왜곡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직면하고 있는 외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1970년대의 MLF가 어떠한 방향 속에서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겪었던 갈등과 분열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갈등이 빚어낸 프랑스 페미니즘의 내적 상황이 어떻게 미국 여성학계의 필요와 맞물려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

기에 앞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논의가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미국 여성학계의 '접근 및 재현 방식'상에서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확산된 프랑스 페미니즘의 내용 및 그 내용이 담고 있는 페미니즘적 가치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논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생략하기로 한다.

2. 본 론

1) 프랑스 여성운동 전통의 비판적 계승으로서의 MLF

프랑스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대혁명 시기는 여성운동이 최초로 집단적 움직임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세기 말까지의 여성운동은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의 여성운동이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그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워 온 가부장제의 '생물학 결정주의적(biologiste)'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여성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어머니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이 지닌 위상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은, 19세기까지의 여성운동이 지녔던 결정적인 한계로 언급되고 있다.[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49년 출간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은, 비록 그녀가 이 책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쓴 것은 아니었지만,[3)] 현대 페미니

2) Monique Remy, *Histoire des mouvements de femmes : de l'utopie à l'intégration*, l'Harmattan, coll. ≪ Logiques sociales ≫, 1990, pp. 19-28 참조.

3) 세 번째 자서전 작품에 해당하는 『상황의 힘 La Force des choses』에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의 집필 의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 바 있다 : "[j]e n'ai jamais nourri l'illusion de transformer la condition féminine ; elle dépend de l'avenir du travail dans le monde, elle ne changera sérieusement qu'au prix d'un bouleversement de la production. C'est pourquoi j'ai évité de m'enfermer dans ce qu'on appelle "le féminisme". Je n'ai pas

즘 담론의 형성을 가능케 한 혁명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4] 이 작품에서 보부아르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전제로 하여, 여성을 타자의 상황에 가두어 온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원인에 대한 전방위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 결과, 남녀의 육체가 지닌 생물학적 조건을 근거로 해서는 그들이 불평등한 관계를 맺기에 이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는 동시에, 생물학 결정주의의 허구성을 성공적으로 폭로하기에 이른다. 더군다나 보부아르가 이 책을 집필할 무렵이었던 양차 세계대전 직후, 20세기 중반의 프랑스 내에서 "남성은 싸우고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면, 여성은 아이를 낳고 돌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les hommes sont faits pour combattre et conquérir, les femmes pour enfanter et materner"라는 기치 아래, 남녀를 전통적인 성 역할 속에 고정시키려는 가부장제의 억압적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5] 『제2의 성』에서 보부아르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

---

non plus apporté de remède à chaque trouble particulier. Du moins ai-je aidé mes contemporaines à prendre conscience d'elles-mêmes et de leur situation.", Simone de Beauvoir, *La Force des choses,* Gallimard, 1963, p. 210.

4) 실제로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는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출간이 현대 여성운동을 태동케 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성운동가 혹은 여성학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서 『제2의 성』 이 지닌 커다란 중요성을 다각도에서 조명한 바 있는 카트린 로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제2의 성』에 대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계의 입장을 잘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 "[à] la mort de Beauvoir, la plupart des féministes – Antoinette Fouque étant une exception – qui se sont exprimées dans la presse ont reconnu le rôle important qu'avaient joué Beauvoir et *Le Deuxième Sexe* dans leur propre vie et pour les femmes en général. Certes l'occasion n'encourageait pas la formulation de critiques ou de reproches, mais la conviction que *Le Deuxième Sexe* était un texte phare pour le féminisme circulait déjà avant la mort de Beauvoir.", Catherine Rodgers, Le Deuxième sexe *de Simone de Beauvoir : un héritage admiré et contesté,* L'Harmattan, coll. ≪ Bibliothèque du féminisme ≫, 1998, p. 23.

5) Françoise Thébaud, "La grande guerre, le triomphe de la division sexuelle", dans *Histoire des femmes en Occident V : Le XXe siècle*, édité par Georges Duby et Michelle Perrot, Plon, 1992, pp. 105-106.

은 실로 파격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보자면『제2의 성』에서 보부아르가 펼치고 있는 주장 역시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 한계란 바로 작가가 드러내고 있는 집단 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6] 여성이 타자로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보부아르는 주로 여성들의 집단적 투쟁의 필요성보다는 실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루기 위한 여성 개개인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68혁명을 기점으로 1970년대를 수놓았던 MLF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프랑스 여성운동의 계보를 잇는 동시에, 그것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뛰어넘고자 했던 집단적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우선 MLF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프랑스 여성운동의 계보를 잇는 차원에서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권을 요구하며 선배들이 전개해 왔던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선배들이 취했던 주체 및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면서 가부장제의 근본적인 해체로 요약될 수 있는, 보다 급진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 그들의 투쟁이 지닌 급진성은 무엇보다도 남성으로부터의 '분리주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여성운동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나가는 데 집중한 결과 남녀 간의 불평등한 위계질서의 허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들은 가부장제 내에서의 남녀 평등의 쟁취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가부장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의 피억압자로서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이해를 전제로 한 투쟁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그녀

6) Françoise Picq, *Libération des femmes: Les années-Mouvement,* Seuil, 1993, p. 24 참조.

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남성과의 분리주의였던 것이다. 즉 남성과의 분리주의에 대한 이들의 선택은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배타주의'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피억압자로서의 여성이 겪은 억압의 경험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투쟁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했던, 가부장제와의 '비판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다.[7] 또한 이들은 여성들의 피억압자로서의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가부장제 타파를 위한 집단적 투쟁의 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수평적 관계를 기본으로 한 여성들 간의 연대를 중시하게 된다. 실제로 가부장제의 완전한 해체라는 혁명적 기치 아래 전개되었던 70년대 MLF에 참여했던 여성들 사이에는 '우리'로서의 강력한 연대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 페미니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집단 투쟁을 벌여 나갔던 것이다.

가부장제의 해체를 목표로 했던 남성들과의 전략적 분리주의 노선 및 여성들 간의 강력한 연대의 추구와 더불어 MLF가 선택한 급진적인 투쟁 방식의 면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집단 혹은 체제 중심이 아닌 개개인이 주도하는 정치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투쟁 방식은 MLF가 설정했던 가부장체의 완전한 해체로 요약되는,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 아래 MLF는 남녀에게 부과되어 왔던 기존의 성 역할로부터 이들 모두를 해방시켜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MLF는 개개인이 자신

---

7) 68혁명 이전까지 크리스틴 델피와 에마뉘엘 드 레셉스(Emmanuelle de Lesseps) 등을 주축으로 한 ≪Féminin·Marxisme·Action≫와 같은 일부 여성운동 단체의 입장으로만 국한되었던 남성으로부터의 분리주의는, 68혁명을 거치면서는 70년대 MLF 진영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68혁명 기간 동안 인간의 해방을 외치면서도 끝내 가부장제 내에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남성들에 대한 비판 의식 속에서, 70년대의 여성운동가들은 남성으로부터의 분리주의를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 표방하기에 이른다. *Ibid.,* p. 14 참조.

8) 물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기 달랐다. 그 방법은 크게, 실천 투쟁을 통해 현실 세계의 실질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방법과 상징 체계

의 경험을 기반으로 각자가 주체가 되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개인적이 것의 정치 la politique du personnel"를 추구했던 것이다.[9]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MLF는 우선 여성의 존재를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부정적 시선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변화시키기 데 총력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여성이 한 명의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MLF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여성의 피억압자로서의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부장적 사회가 정립시켜 온, '여성적인 것 = 열등한 자질'이라는 등식을 해체하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MLF 내부에서 이러한 시도가 여성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 긍정 또는 남성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 부정의 논리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MLF가 추구했던 것이 성의 해방이었던 만큼,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에 전도된 가치를 매기려는 시도는 결국 남녀를 고정된 성 역할 속에 다시금 가두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성의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성이 억압당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MLF에 참여했던 여성 대부분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성이 남성만큼의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증명하려는 시도로도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의 변혁을 통해 개개인의 내면에 뿌리내리고 있는 가부장적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MLF에 참여했던 여성들 상당수가 전자의 방식을 중시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1970년대 초반까지 MLF의 여성운동가들은 가부장제의 근본적 철폐와 성해방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 두 가지 방식을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Ibid.*, pp. 129-130 참조.

9) MLF가 택한 이러한 투쟁 방식에 대해 피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Ils [les mouvements de libération des femmes] veulent changer la façon de penser et d'agir des individu(e)s, développer chez les femmes une nouvelle conscience de soi. (...) Homosexuelles ou hétérosexuelles, célibataires ou mariées, mères ou non... chacun choisit son mode de vie et toutes luttes ensemble.", *ibid.*, pp. 183-186.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야말로 남성성을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설정해 왔던 온 가부장제의 기존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MLF는 남성들처럼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해방"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여성적인 본보기를 받아들이거나 남성의 운명을 모방하는 것" 모두를 거부했던 것이다.[10]

개인적인 것의 정치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MLF는 무엇보다도 여성 개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적 억압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들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곳곳에서 열렸으며, 이 모임에 참여한 여성들은 서로의 개인적 경험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해 나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성 억압의 보편성을 직접 인식해 나갔고 여성 연대의 중요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었다.[11]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MLF가 어떠한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조직화된 운동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 결과 MLF는 기존의 정치 운동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의 형태가 아니라, 모든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서로 다른 경향과 실천 방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공존과 연대를 통해 함께 만들어 낸 거대한 투쟁의 흐름, 그것이 바로 MLF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즉 MLF는 "하나의 조직 une organisation", "하나의 단체 un groupe" 또는 엘리트 여성들 중심의

10) "Faut-il alors choisir d'être comme son père, ses frères, ses cousins... un individu qui peut choisir son avenir, qui peut discuter, s'affronter avec les armes de l'intelligence, de la raison, dominer et mépriser les autres? Faut-il pour être un être humain renoncer à être une femme? C'est une fausse alternative que le Mouvement refuse égnergiquement : accepter le modèle féminin ou mimer le destin de l'homme. Il ne revendique pas l'égalité (être, faire, comme eux), mais la libération : être soi.", *ibid.*, pp. 123-124.

11) *Ibid.,* pp. 122-123 참조.

"여성전위부대 l'avant-garde des femmes"가 아닌,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방을 향한 움직임에 동참한 "모든 여성들 toutes les femmes"의 투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12]

따라서 MLF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몇 가지 경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MLF가 마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크가 지적하고 있듯이, 몇 가지 경향만을 중심으로 MLF의 흐름 전체를 설명하려는 태도는 "이 운동이 탈피하고자 했던 도식 속에 이 운동을 다시금 가두는 c'est enfermer le Mouvement dans les chémas auxquels justement il a échappé"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추구했던 정치 노선의 경향들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MLF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MLF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경향을 대략, ≪계급투쟁(la Lutte de classe)≫, ≪혁명적 페미니스트(les Féministes Révolutionnaries)≫, 그리고 ≪정신분석과 정치(la Psych et Politique)≫,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14] 일반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우선시 했던 경향을 지닌 이들이 ≪계급투쟁≫ 계열로 분류된다면, 가부장제 내에서는 모든 여성이 같은 사회적 계급에 속한다고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가부장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급진적인 투쟁 노선을 추구했던 여성들은 ≪혁명적 페미니스트≫ 계열로 분류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개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남성중심적 사유 구조에 있다고 보고 사회 체제가 아닌 상징 체계의 변혁을 위한 투쟁 노선을 우선시했던 이들은 ≪정신분석과 정치≫

12) *Ibid.*, p. 99 참조.
13) *Ibid.*, p. 190.
14) Remy, *op.cit.* ; Gill Allwood, *French Feminism : Gender and violence in contemporary theory*, UCL Press, 1998 참조.

계열로 분류된다. 그리고 MLF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세 가지 경향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논쟁은 바로 이론과 실천 투쟁 간의 관계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진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정신분석과 정치≫ 사이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철폐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연대 투쟁을 중시했던 70년대 초반과 달리 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MLF 내에 점차 분열과 갈등의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사회 체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 투쟁을 우선시했던 이들과,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부장적 인식 구조를 우선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가부장적 상징 체계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체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의 정립을 우선시했던 이들 간의 대립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MLF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여성들이 전자의 입장을 취했던 반면, 후자의 입장은 ≪정신분석과 정치≫라는 하나의 집단에 의해만 적극적으로 옹호되었다.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의 충돌이 가시화된 시점은 1974년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MLF는 본격적으로 분열의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MLF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대다수가 전자의 입장을 지지했기에, 프랑스 내에서 MLF의 역사를 연구했던 이들 사이에는 사회 체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MLF가 벌여 나갔던 실천적 투쟁의 내용들이 거의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MLF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미국 여성학계에서는 프랑스 내부에서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이론 중심의 투쟁 노선이 MLF의 주된 흐름이었던 것처럼 기술하는 흐름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70년대 MLF를 바라보는 프랑스 내부의 시선과 외부의 시선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괴리가 단순히 역사를 해석하는 두 진영의 관점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괴리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그것이 MLF를 자신

들의 것으로 독점하고자 했던 ≪정신분석과 정치≫의 야심이, 자기정당화의 수단을 필요로 했던 70년대 말의 미국 여성학계가 처한 내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미국 여성학계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신분석과 정치≫와 다른 여성운동가들 사이에 벌어졌던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미국 여성학계에 의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2) MLF 내의 갈등과 분열

1970년대 중반에서 접어들면서 MLF 내의 분열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기에 이르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슷한 투쟁 노선 및 방식을 추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모임이 점차 체계적으로 조직된 결과, 조직화된 진영들 간의 대립 및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MLF 내에는 계급투쟁과 여성운동 간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논쟁을 비롯하여, 가부장제의 해체와 이성애중심주의의 해체 사이의 상관성을 놓고 벌어진 논쟁 및 제도권 내에서의 법적 개혁을 중시하는 개량주의적(réformiste) 진영과, 법을 넘어선 사회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했던 혁명주의 진영 간의 논쟁, 나아가 실천 투쟁을 우선시하는 흐름과 이론적 탐구를 중시하는 흐름 간의 대립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쟁을 거치면서 MLF가 더욱더 풍성한 담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실천 투쟁과 이론 투쟁 사이의 우선순위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그야말로 MLF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이 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던 집단인 ≪정신분석과 정치≫

는 바로 가부장적 상징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체할 수 있는 이론 정립을 가장 중시했다. 라캉 계열의 정신분석 학자였던 앙투와네트 푸크(Antoinette Fouque)의 주도하에 설립된 이 집단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간의 정신을 가부장적 구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현실을 실질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실천 투쟁을 우선시했던 MLF 내부의 대다수 여성운동가들과 이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대립적 관계를 형성했었다. 이 집단에 적을 두고 있었던 이들은 푸크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한 리더의 지휘하에 라캉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상징 체계를 지배하는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비판 및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이론들을 양산해 냈다. 특히 이들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법과 권위가 지배하는 상징계를 거치면서 가부장적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고 보았던 라캉의 해석에 기반 하여, '여성'과 '여성성'이 지닌 가부장적 상징 체계를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화하고자 했다. 이들에 따르면 여아 역시 남아와 마찬가지로 상징계를 거치면서 가부장적인 상징 질서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아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경험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 푸크의 글을 인용해 말해 보자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적이라 할 수 있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그녀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 문제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녀가 이 문제들을 사용한다면 그와 더불어 그녀 자신을 살해하기에 이르기 때문일 것이다. [...] she has to face problems which are all masculine and this is what puts her in mortal danger – if she doesn't use them, she doesn't exist, if she does use them, she kills herself with them."[15] 이러한 분석을 전제로 하여, 이들은 여성해방운동이 "여성이 차별화된 자유로,

15) *French Connections : voices from the women's movement in France,* edited and translated by Claire Duche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7, p. 48.

차이를 지향하는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to bring them[women] to existence as a differenciated space, a space for difference"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6]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심지어 당시의 MLF를 포함한 그 어떤 여성운동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이들은 여성의 현실적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은 결국 가부장제 내에서 남성들이 누리는 특권을 공유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여성해방운동을 위해 싸우는 진짜 페미니스트는 바로 자신들이라고 공언했다.[17]

따라서 현실의 실질적인 변혁을 위해 실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던 MLF의 대다수 여성들이 이 집단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우선 이들은 이 집단이 엘리트 중심주의에 기반 하여 이론화 작업에 몰두한 결과, MLF의 가장 중요한 투쟁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대중 여성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도외시하는 동시에 모든 여성들의 "축제 une fête"가 되어야 혁명을 자신들만의 "작업 un travail"으로 축소하여 간주하는 상태에 빠지기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표명했다.[18]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MLF 내의 대다수 여성들은 가부장적 논리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위험한 관점을 지닌 집단은 오히려 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에서 MLF의 대다수 여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않던 가부장적 '본질주의(l'essentialisme)'의 측면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MLF에 참여했던 대다수 여성들은 ≪정신분석과 정치≫가 여성성이 지닌 가부

16) *Ibid.*

17) 일례를 들어 이 집단이 1977년 12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월간지, *Des femmes en mouvements*에 실린 다음과 같은 구절을 들 수 있다 : "Socialisme et féminisme, pacifistes, réformistes et progressistes ou soi-disant révolutionnaires, tous deux héritiers de l'humanisme occidental, sont les deux plus puissants piliers du Patriarcat déclinant, l'ultime étape – historiquement connue – du Phallogocentrisme.";"Le féminisme n'est radical que comme racine du Patriarcat et ne peut par fait de structure revenir qu'à la différence du même ou à la différence internée.", Picq, *Des femmes en mouvmement,* n° 2, février, 1978; ibid., pp. 260-261에서 재인용.

18) *Ibid.*, pp.126-127 참조.

장제 해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시금 이분법적 대립 관계 속에 위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수한 여성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그동안 가부장제를 지탱해 온 성차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을 재생산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들은 특수한 여성성의 존재를 주장하는 이 집단의 입장이, 성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인식이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야 할 페미니즘에 근본적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차 없이 이 집단을 '반페미니스트(anti-féministe)' 집단으로 규정했다.[19]

그런데 사실 어떠한 진영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페미니스트로 볼 수 있는가에 답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 논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논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계가 여전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지 딜레마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놓여 있다. 조앤 스콧(Joan W. Scott)의 표현을 빌려 설명해 보자면, 페미니즘계가 직면해 온 딜레마란 바로 "신체적 성과 정치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성차는 사회적·지적 혹은 정치적 능력을 재는 척도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가부장적 권위에 도전해온 페미니스트들이,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배제에 항의하려면 여성을 대표해 행동해야 했고, 그래서 그토록 부정했던 바로 그 차이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19) 혁명적 페미니즘 계열을 대표하는 여성운동가였던 델피는 ≪정신분석과 정치≫의 반페미니스트 성향에 대해 가장 가열찬 비판을 가했던 이였다. 특히 델피는 성차를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주저없이 이 집단을 반페니미즘 집단으로 규정했다. Delphy, *ibid.*, p. 191 참조. 피크 역시 이 집단에 속한 이론가들이 성의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집착에 사로잡힌 결과, 성 역할을 비롯해 성적 특수성을 사회적 가공품이자 역사적으로 구성된 결과물로 보는 페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망각한 채 여성성을 역사와 사회 밖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변치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본질주의적 관점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Picq, *ibid.,* pp. 261-262 참조.

있다.[20] 즉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차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필요가 있었지만, 동시에 차이를 논하게 되는 순간 다시금 가부장제가 기대어 왔던 본질주의적 논리의 늪에 빠지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MLF에 참여했던 여성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이러한 딜레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MLF 초기부터, 아니 페미니즘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라 할 수 있는 대혁명 시대부터 평등과 차이의 관계 설정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하겠다. 피크에 따르면 실제로 MLF가 전개되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논쟁은 MLF 내부의 논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21] 따라서 ≪정신분석과 정치≫가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 속에서 이론 정립을 우선시하는 투쟁을 추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집단이 MLF 내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기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했던 MLF의 분위기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집단이 MLF의 내분을 초래한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집단이 다양한 경향들 간의 공존을 존중했던 MLF의 정신에 반하여,

---

20) 조앤 W. 스콧, 공임순, 이화진, 최영석 역,『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앨피』, 2006, p. 25. 그러나 스콧이 이러한 역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그녀는 페미니즘이 이러한 역설에 몸소 부딪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대의 역설 그 자체를 폭로하는 운동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에 근거하여, 오히려 이러한 역설이 "결정 불가능성의 정치학"으로서 페미니즘이 지닌 긍정적인 본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은 역설적이었다. 프랑스 혁명기 올랭프 드 구즈 Olympe de Gouges의 말을 빌면, 페미니스트들은 "오직 역설만을 던져주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젠더에 대한 권위적 정의들을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의들을 거부했다. 공언하면서 동시에 거부함으로써, 자연의 이름으로 제시되고 법을 통해 부여된 젠더 정의의 모순, 그리고 그 정의 안에서 생략된 바를 드러냈다. (...) 그러므로 우리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투쟁을 결정 불가능성의 정치학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갈등과 딜레마, 역설 역시 더 잘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ibid.*, pp. 26-27.

21) Picq, *op.cit.,* pp. 261-262 참조.

이 운동을 자신들의 것으로 독점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냈으며,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그리고 MLF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이들이 세운 작전은 성공으로 끝나게 되며, 그 결과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집단의 입장이 MLF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MLF 외부에서는, 이 운동이 평등과 차이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둘러싸고 풍부한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은 간과된 채, 차이에 대한 이론 정립을 중시한 페미니즘 운동으로 MLF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렇다면 ≪정신분석과 정치≫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MLF를 독점하는 데 성공했을까?

≪정신분석과 정치≫가 MLF 내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기에 이르게 만든 주된 원동력은 우선 이 집단이 MLF 내에서 유일하게 조직화된 운동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정신분석과 정치≫는 MLF 내의 다른 집단들과 달리, 앙투아네트 푸크라는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단체 une association'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MLF 초기부터 이 집단은 상당히 조직적인 활동들을 펼쳐나갔고, 푸크를 대표자로 내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외부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알려왔다. 반면 MLF가 개인적인 것의 정치로 특징지어졌던 운동이었던 만큼, MLF 내의 대다수 참여자들은 단체 중심의 활동을 지양했다. 이러한 운동 방식은 MLF 내에 다양한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긍정적인 토대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MLF가 외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MLF가 만들어낸 담론과 그들이 펼치는 투쟁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프랑스 언론들은 이 운동에 대한 정보를 이 운동을 대표하는 누군가로부터 얻길 원했지만, 어떠한 개인도 그 어떤 집단도 자신들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을 거부했던 MLF와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 프랑스 언론들에게 가장 조직화된 움직임을 보였던 ≪정신분석과 정치≫는 MLF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상당히 고마운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언론들은 이 집단의 입장과 활동 내용을 MLF 전체의 그것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MLF 운동가들은『르 토르숑 브륄 Le Torchon brûle』[22]과 같은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 매체를 직접 만들어 MLF의 입장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해 냈다. 그런데 ≪정신분석과 정치≫가 설립한 ≪데 팜므(Des Femmes)≫라는 출판사가 1974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양의 출판물을 조직적으로 쏟아내고 그 결과 MLF 내의 발언권이 이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1972년에 설립된 이 출판사는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74년을 기점으로 당시로서는 엄청났던 자금력과[23] 조직화된 경영 방식을 앞세우게 되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다. ≪정신분석과 정치≫의 탄탄한 조직력과 강력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이 출판사는 당시 여성운동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본주의적 경영 정신에 입각하여 출판 사업을 벌여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 단기간 내에 페미니즘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출판물들이 이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으며, 그것들은 그 산하에 있던 ≪리브레리 데 팜므(Librairie des femmes)≫라는 서점망을 통해 상당히 조직적인 방식으로 판매되었다. 여성운동의 역사부터 동시대 국내외 페미니즘 이론서 및 여성 작가들의 문학 작품, 그에 대한 평론서, 나아가 여성운동가들의 증언을 담은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22) MLF가 직접 발간한 신문으로, 1971년 5월부터 73년 6월까지 정식 판매되었다. 이 신문의 창간은 이후 수많은 여성주의 신문이 발간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23) 이 출판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확충하게 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당시 일간에서는 한 부유한 은행가의 유산이 투자되었다는 설이 떠돌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분석과 정치≫ 측에서는 자금 확보 경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몇몇 활동가들이 본인들의 돈을 보태거나 모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정도의 설명을 하는 선에 그쳤다. *Ibid.*, pp, 211-212 참조.

실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이 출판사를 통해 출간·판매되었고, MLF 내의 다른 출판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해 나갔다. 특히 영미권을 비롯한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서 및 문학 작품들을 번역해 출판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벌여나간 결과, ≪데 팜므≫ 출판사는 국제 여성학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국제 여성학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투쟁과 그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여성들의 존재를 알려나가는 일종의 '대변자'로 이 출판사를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출판사가 다룬 여성 작가 및 사상가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쥘리아 크리스테바, 엘렌 식수, 그리고 뤼스 이리가레라는 삼인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출판사를 바라보는 MLF 내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 ≪정신분석과 정치≫의 운동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 출판사의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식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이 출판사를 바라보는 MLF 내의 시선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단체에 적을 두고 있던 활동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운동가들은 다른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길 원했다. 그리고 MLF 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었던 『르 토르숑 브륄』에 대항해 이 출판사가 『르 코티디앙 데 팜므 Le Quotidien des femmes』라는 신문을 창간한 1974년을 기점으로 신문 매체를 통한 두 진영 간의 페미니즘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두 진영은 급격한 단절의 길을 걷기에 이른다.

그러나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다툼의 승자는 ≪정신분석과 정치≫였다고 할 수 있었다. 탄탄한 조직력과 안정적인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데 팜므≫와의 출판 경쟁에서 MLF 내의 다른 출판기관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었고, 출판 시장에서의 승리는 곧 ≪정신분석과 정치≫가 여성운동과 관련된 발언권을 독점하는 것을 가능케 해 주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1979년, ≪정신분석과 정치≫는 ≪Mouvement de libération des femme – MLF≫를 자신들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MLF를 독점하고자 하는 야망을 실천에 옮기기에 이른다. 이 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여성 운동가들이 ≪정신분석과 정치≫의 이러한 행위를 자신들에게서 MLF 자체를 도둑질해 가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다.[24] 그리고 실제로 이 집단은 MLF 내의 다른 출판 기관이 이 명칭을 사용하여 책을 출간 할 때마다 '재산권' 침해 및 사업상의 손실을 명목으로 이들을 고소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등 MLF을 독점하고자 하는 야심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 내부에서는 7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MLF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80년대의 사회당 집권과 맞물려 프랑스 여성운동은 이후 다른 방향 속에서 전개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히려 프랑스 외부에서는 MLF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던 70년대 말을 기점으로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는 MLF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는 ≪정신분석과 정치≫가 MLF를 독점하는 데 성공한 동시에 출판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국제 페미니즘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70년대 말은 ≪정신분석과 정치≫와 학문적으로 교류했던 미국 여성학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집단에 의해 주창되었던 차이의 페미니즘이 MLF 전체를 관통했던 페미니즘 담론이었던 것처럼 미국 여성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여성학계가

24) 이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집회에서 배포된 한 유인물에는 MLF 참가자들이 당시에 느꼈던 이러한 심정이 잘 담겨있다 : "Un groupe qui utilise indifféremment les signatures suivantes ≪Psychanalyse et Politique≫, ≪Des femmes en mouvements≫ (mensuelle et hebdo), SARL Éditions et Librairies ≪Des femmes≫, ≪Des femmes du MLF≫ revendique la propriété exclusive du Mouvement de libération des femme. [...] De même que les procès en diffamation intentés par ce groupe à d'autres femmes étaient la traduction juridique des conflits politiques entre ce groupe et d'autres, le dépôt de l'association 1901 n'est que la concrétisation légale de sa volonté, depuis longtemps manifeste, de s'approprier l'ensemble du Mouvement de libération des femme. [II] constitue un grave danger pour l'avenir du Mouvement de libération des femmes tout entier.", *Ibid.,* p. 298에서 재인용.

국제 여성학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80년대에 이르러서는 MLF의 역사를 비롯한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버전, 즉 '프렌치 페미니즘'에 대한 담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 사이에, 미국 여성학계 내에서의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리고 미국 여성학계는 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일까?

3) 프랑스 페미니즘에서 '프렌치 페미니즘'으로

(1) '프렌치 페미니즘'의 형성 과정

미국 여성학계 내에서 프랑스 페미니즘이 '프렌치 페미니즘'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추적하고 있는 논문, 「미국산 : 미국 학계의 담론 속에서의 '프렌치 페미니즘' Made in America : 'French Feminism' in United States Academic Discourse」의 저자인 클레어 모지스(Claire Moses)에 따르면,[25]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미국 여성학계의 왜곡은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약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의 초반은 미국의 저명한 여성학 학술지인 『사인 *Signs*』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학술지는 특히 'MLF = 가부장적 상징 체계의 해체를 추구한 이론 중심의 운동', 그리고 'MLF를 주도한 이론가 = 크리스테바, 식수, 이리가레' 라는 등식을 미국 내에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우선 이 학술지는 70년대의 주목할 만한 프랑스 작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1975년에는 크리스테바의 『중국여성들 *Des Chinoises*』를,[26] 76년에는 식수의 『메두사의 웃음 *Le Rire de la Méduse*』을[27] 영어로 번역해 소개한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 두 작가를 프랑스 페미니즘 작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으며, 단지 가장 도발적이고 존경 받는 현대

25) Claire Moses, "Made in America : 'French Feminism' in United States Academic Discourse", dans *Australian Feminst Studies,* vol. 11, n° 23, 1996, pp. 17-31.
26) Julia Kristeva, *Des Chinoises,* Des Femmes, 1974.
27) Hélène Cixous, *Le Rire de la Méduse,* L'Arc, 1975.

프랑스 작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78년에 이르러 왜곡의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결과물들이 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는데, 엘렌 막스(Elaine Marks)의 「프랑스에서의 여성과 문학 Women and Literature in France」과[28] 캐롤린 그린슈타인 버크(Carolyn Greenstein Burke)의 「파리 보고서 :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운동 Report from Paris : Women's Writing and the Women's Movement」이 바로 그것들이었다.[29] 미국의 저명한 불문학자였던 이 두 저자의 목표는 공통적으로 70년대 프랑스에서 등장한 여성 작가들 및 그들이 문학계에 몰고 온 새로운 글쓰기 경향을 소개하는 데 놓여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새로운 글쓰기 경향을 지닌 프랑스 작가들의 등장과 MLF의 흐름을 섞어서 소개하는 식으로 내용을 구성한 결과, 프랑스 작가 및 MLF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던 영어권 독자들로 하여금 프랑스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모두 소설가, 철학자, 혹은 평론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선입견을 갖게 했던 것이다.[30] 특히 버크의 경우, 68혁명 직후의 MLF 전개 과정에 대해 짧게 소개한 직후 가부장적 상징 체계의 해체를 목적으로 프랑스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론 정립 및 언어를 중심으로 한 실험적 글쓰기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러한 선입견을 가질 만한 여지를 더욱더 키우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모두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대표하는 작가로 크리스테바와 식수, 이리가레를 언급하고 이들을 소개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임으로써 자신들의 글을 읽은 독자들이 은연중에 'MLF = 가부장적 상징 질서의 해체를 추구한 이론 투쟁 중심의 여성운동'이라는 등식을 받아들이게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삼인방의 사상을 곧 MLF의 핵심적 사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당시의 영어권 독자들에게 프랑스 작가 및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28) Elaine Marks, "Women and Literature in France", dans Signs, 3.4 (1978): pp.832-842.
29) Carolyn Greenstein Burke, "Report from Paris : Women's Writing and the Women's Movement", dans *Signs,* 3.4 (1978): pp. 843-855.
30) Moses, *op.cit.*, p. 23 참조.

정보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막스와 버크가 미국 내에서 프랑스 지식인 사회와 긴밀한 학문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프랑스 문학 전문가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맞물려,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이들의 접근 방식이 지닌 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이 만들어 낸 프랑스 페미니즘의 각색된 버전이 별다른 저항에 부딪히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어서 1979년에 '차이'를 주제로 열렸던 ≪Barnard College Scholar and the Feminist Conference≫에는『사인』지의 집필진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 사상 (Comtemporary Feminist Thoughts in France)≫이라는 분과가 특별히 마련되어, 크리스테바와 식수, 이리가레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이 자리에서 발표되었던 글들을 모은 책,『차이의 미래 *The Future of difference*』가 출간되기도 했다.[31] 특히 이 책에 실린 글들 중에서『사인』지의 편집장이었던 돔나 스텐튼(Domna C. Stanton)이 쓴「언어와 혁명 : 프랑스-미국 간의 단-절 Language and Revolution : The Francon-American Dis-Connection」이라는 글은 주목할 만하다.[32] 여기서 스텐튼은 언어를 주요 투쟁 대상으로 설정했던 70년대 프랑스 페미니즘을 이끌었던 사상가들로 크리스테바, 식수, 이리가레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미국 여성학계가 프랑스 페미니스트라는 범주에 속하는 인물들로 이 삼인방을 규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1981년에『사인』지는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을 다루는 특별호를 출간하여 이 삼인방을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로 규정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기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막스와 이자벨 쿠르티브롱(Isabelle Courtivron)이 공동으로 집필한『새로운 프랑스 페미니즘 *New French Feminism*』라는, 이후 현대 프

31) *The Future of difference*, edited by Hester Eisenstein and Alice Jardine, G.K. Hall, 1980.
32) Domna C. Stanton, "Language and Revolution: The Franco-American Dis-Connection," The Future of Difference, dans *The Future of difference, ibid.* pp. 73-87.

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입문서로 군림하게 될 저서의 1980년 출간은 프렌치 페미니즘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33] 이 책에서 막스와 쿠르티브롱은 앞서 언급한 삼인방 이외에도 보부아르나 크리스틴 델피와 같은 유물론적 페미니스트 등 당시 프랑스 여성운동 진영의 여러 이론가들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용의 상당 부분을 삼인방의 사상을 소개하는 데 할애함으로써 이들을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핵심적 인물로 간주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히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서문에서 이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본질을 왜곡하여 제시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을 기존의 프랑스 페미니즘의 전통과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소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지식인들의 삶의 경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MLF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프랑스 페미니즘을 기존의 프랑스 페미니즘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규정한다.[34]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면, 이들은 크리스테바, 식수, 이리가레, 이 삼인방이 공통적으로 평등권 쟁취를 위한 전통적 페미니즘의 투쟁을 가부장제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기 위한 시도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이들이 대변하는 새로운 프랑스 페미니즘이 기존의 프랑스 페미니즘과의 과감한 단절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결과물에 해당한다는 관점을 피력했다. 즉 이 책의 저자들은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본질을,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사회적 조건의 변혁이 아닌 가부장적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상징 체계의 변혁을 추구한다는 일종의 '언어 혁명'으로 소개했던 것이다.

---

33) *New French Feminism*, edited and with introd. by Elaine Marks and Isabelle de Conurtivr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0.

34) "The new French feminisms cannot be understood diachornically as part of the history of feminism in Franc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old and the new feminisms are best perceived by situating the new feminisms synchronically in relation to the profound changes in orientation of French intellectual life.", *ibid.*, p. 30.

이러한 관점은 이후 토릴 모이(Toril Moi)와 같은 거물급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동의를 얻게 되면서 미국 여성학계 전반의 관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1985년 출간 직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페미니즘 사상서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Sexual/Textual Politics*』은 토릴 모이가 막스와 버크와 동일한 관점에서 프랑스 페미니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모이는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2부의 도입부에서 크리스테바, 식수, 이리가레야 말로 언어 및 글쓰기상에서의 여성주의적 혁명의 필요성을 논하는,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주류" 사상가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고[35] 2부의 대부분을 이들 삼인방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할애함으로써,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일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 여성학계는 70년대에 형성된 프랑스 페미니즘의 흐름이, 대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여성해방운동을 이론 및 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킨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를 프랑스 페미니즘의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로 한 새로운 흐름으로 소개하는, '몰역사적'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만다.

MLF 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했던 ≪정신분석과 정치≫가 MLF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였던 것처럼 소개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막스와 쿠르티브롱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 집단을 MLF의 대변자인 것처럼 소개했다.

> The group now known as "politique et psychanalyse", one of the earliest to be formed (1968), has become the cultural and intellectual center of

35) "In the following presentation of French feminist theory I have chosen to focus on the figures of Hélène Cixous, Luce Irigary and Julia Kristeva. They have been chosen partly because their work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main trends in French feminist theory, and partly because they are more closely concerned with the specific problems raised by women's relation to writing and language than many other feminist theorists in France.", Toril Moi, *Sexual/Textual Politics,* Routledge, 1988(1985), p. 97.

> the MLF (...) "Politique et psychanalyse" is the most original of the women's liberation groups in France and perhaps in the Western world.[36]
>
> 오늘날 "정치와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집단은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집단들 중 하나로서(1968), 문화적 그리고 지적인 측면에서 MLF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정치와 정신분석"은 프랑스, 나아가 아마도 서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해방운동 집단들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집단에 해당한다.

이어서 이 단체의 입장을 MLF 전체의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서술하기까지 한다. 반면 MLF의 이론 및 실천 투쟁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사회적 형성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여성의 현실적 삶의 여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했던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흐름은, 마치 MLF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인 양 치부되기에 이른다. 보부아르에 대한 당시 미국 여성학계의 평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적어도 프랑스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여성이 타자로서의 상황에 갇히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보부아르가 『제2의 성』에서 시도했던 유물론적 접근 방식이 MLF의 여성운동가들이 투쟁을 벌여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의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피크는 보부아르의 존재는 과거에 속하는 "추상적인 준거"가 아니라,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선배들이 걸어 온 투쟁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물질적인 연결고리"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37] 하지만 이와 달리 1980년대의 미국 여성학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부아르의 페미니즘 사상을 MLF의 핵심적 사상가들이 비판해 마지않던, 낡아빠진 전통적 페미니즘의 대명사로 소개하는 경향을 상당

36) *New French Feminism*, *op.cit.*, pp. 31-33.

37) "La filiation avec les fémnistes du passé n'est pas une référence abstraite mais un lien charnel. Plus d'une vocation d'historienne s'éveille ici.", Picq, *op.cit.*, p. 219.

히 반복적으로 드러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토릴 모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It has often been claimed that the new generation of French feminist theorists have rejected Simone de Beauvoir's existentialist feminism entirely. Turning away from Beuavoir's liberal desire for equality with men, the argument goes, these feminists have emphasized difference. Extolling women's right to cherish their specifically female values, they reject 'equality' as a covert attempt to force women to become like men. (...) Though existentialism in general was marginalized by the shift to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in the 1960s, it would seem that nothing dates *The Seconde Sex* more, in relation to the new women's movement in France, than Beauvoir's rejection of psychanalysis. Cixous, Irigagary and Kristeva are all heavily indebted to Lacan's (post-) sturucturalist reading of Freud, and any further investigation of their work therefore requires some knowledge of the most central Lacanian ideas.[38]

> 신세대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시몬 드 보부아르의 실존주의적 페미니즘을 완전히 거부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어 왔다. 자유주의에 입각해 남성과의 평등권을 추구했던 보부아르의 바람과 결별하고, 이들 신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시킨다. 이들은 여성 특유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극찬하는 동시에, 평등권 쟁취를 주장하는 방식을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강요하는 은밀한 시도에 다름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거부한다. (...) 일반적으로 실존주의는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가 부상했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신분석에 대한 보부아르의 거부야말로 프랑스 내에서의 새로운 여성운동과 관련해서 『제2의 성』을 낡은 것으로 만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식수, 이리가

38) Moi, *op.cit.*, pp. 98-99.

> 레 그리고 크리스테바는 모두 프로이드에 대한 라캉의 (후기) 구조주의적 해석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기에, 그들의 작업을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라캉의 사상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보부아르에 대한 미국 여성학계의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 나아가 그것이 야기한, 유물론적 페미니즘이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을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들 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몰인식이 야기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양산된 결과, 한동안 미국 내에서는 70년대 프랑스 여성운동가들이 현실 세계를 바꾸기 위해 벌여 나갔던 치열한 실천 투쟁들과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평등과 차이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의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찾아볼 수 없게 되며,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을 오직 ≪정신분석과 정치≫가 주도한 차이의 페미니즘로만 바라보려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나아가 가부장적 상징 질서의 해체 및 여성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부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정신분석과 정치≫의 입장을 MLF 전체의 입장과 동일시한 결과, 미국 내에서는 MLF 여성운동가 전체를 본질주의자로 규정하는 경향마저 확산되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다시 한 번 토릴 모이를 비롯한 다수의 이론가들을 거치면서 정설로 자리 잡게 된다.

모지스의 말을 빌려 정리해 보자면,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미국 여성학계의 왜곡은 "행동보다는 이론을 중시하고, 라캉 및 후기구조주의를 여성 조건의 유물론적 탐구보다 우선시하고, 문학과 철학적 담론을 사회 및 역사적 담론보다 중요하게 간주하는 Theory was privileged over activism, Lacanian and poststructuralist over materialist explanation for women's condition, literary and philosophical discourse over the social and historical" 경향의[39] 페미니즘이라는 틀 속에 프랑스 페미니즘을 가두는

39) Moses, *op.cit.,* p. 18.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 여성학계로 하여금 프랑스 페미니즘을 왜곡하도록 하였는가? 이 사태는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나름의 의도가 빚어낸 결과물인가?

(2)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 사태의 원인

우선은 MLF의 시대에 대한 미국 여성학계의 무지가 만들어 낸 결과로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출판 시장에서의 성공을 앞세워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정신분석과 정치≫의 강력한 존재감이, MLF의 구체적인 현실에 무지했던 미국 여성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체의 관점에서 MLF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한 몫 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모지스의 지적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성학계가 "[MLF의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40]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미국 주류 여성학계의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학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하겠다.[41] 따라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된 버전의 확산은 단순히 무지의 소치로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 주류 여성학계가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 지닌 오류를 지적하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상당히 정형화된 방식으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에 왜곡을 가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왜곡 사태는 의도적 결과물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연구자들은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가 80년대의 미국 내에서 자리 잡지 못했었다는 점, 둘째, 미국 학계가

40) *Ibid.,* p. 21.

41) 예를 들어 Claire Duchen, *Feminism in France : From May 68 to Mitterand,* Routledge, 1986 ; Dorothy Stetson and Dorothy E. McBride, *Women's Right in France,* Greenwood Press, 1987 참조.

외국 학문을 대할 때마다 일관되게 '제국주의적(imperialistic)'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점, 이 두 지점에서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에 대한 모지스의 날카로운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모지스에 따르면 미국 여성학계에 의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 현상의 저변에는 우선 미국 학문들 간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 the power relationship"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2]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이는 미국 내에서 여성학이 문학계의 주도하에 발전해왔으며, 그 결과 적어도 여성학과 관련해서는 문학이 다른 분야들에 우선하는 "지배적 학문 the predominant discipline"으로 군림했던 현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43]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Something has happened within academic feminism - and indeed within the United States academy - that I called the hegemony of literature. (...) Although we know that feminist instruction can occur in a variety of settings, when United Sates feminists speak about 'feminist pedagogy' we normally mean a format suited to literature and philosophy classrooms. Although we know that feminist theories are the varieties of thinking that aspire to explain women's condition in searching out presumptions and assumptions, goals and strategies, we more and more use 'theory' as a synonym for a certain kind of academic, philosophical discourse, which feels comfortable for some intellectuals in certain specific disciplines, but foreign to others.[44]
>
> 페미니즘 학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페미니즘 학계 내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문학의 패권이라 불렀다. (...)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이 다양한 설정 속에서 이루어질

42) Moses, *op.cit.*, p. 27.
43) *Ibid.,* p. 28.
44) *Ibid.,* p. 28

>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 교육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보통 그것은 문학과 철학 수업의 구성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페미니즘 이론이 추정과 상정, 목적과 전략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조건을 설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유의 다양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점점 더, 다른 분야의 학자들에게는 낯설지만 어떤 특정 지식 분야의 지식인들에게는 익숙함을 불러일으키는 특정 학계의 철학적 담론을 '이론'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페미니즘 담론의 형성의 헤게모니를 문학계가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사회의 실질적 변혁을 위한 실천 투쟁이 아니라 상징 체계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상에서의 투쟁에 쏠려 있었던 만큼, 그들의 관심사에 부합하지 않았던 다른 흐름들은 페미니즘 담론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모지스는 미국 내에서 "소위 학제간 영역이라 불렸던 것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제간이라 할 수 없었다 our so-called interdisciplinary field is not so very interdiscipliary after all"라고 말한다.[45]

모지스에 따르면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을 야기한 두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외국 학문에 대한 미국 여성학계의 제국주의적 접근 방식은 여성학 분야에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문학계의 패권주의적 태도가 빚어낸,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제국주의적 접근 방식이라 함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문화를 일방적으로 이용했던 미국 여성학계의 태도를 지칭한다. 모지스에 따르면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단 미국 여성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학계는 기본적으로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채, 그들 문화의 어떤 측면을 마음대로 도용

45) *Ibid.*.

하고, 그것을 고유한 문맥에서 떼어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exproriating an aspect of their culture, decontextualising it, using it for our purpose, with little interest in the people themselves"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46] 모시스는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미국 여성학계의 왜곡이 정확히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미국 여성학계의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 Americans – not exactly in the role of coloniser, but certainly as the imperial power – have expropriated one aspect of French culture, used it for our purpose, with little regard for the French or the French context. (...) We have exoticised and even eroticised French feminism, then decontextualised it and used it for our purposes, with little interest in French feminist activists and their concrete political struggle on behalf of very real French women.[47]
>
> (...) 미국인들은 정확히 식민주의자의 역할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확히 제국주의적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인들 혹은 프랑스의 맥락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프랑스 문화의 한 측면을 도용하고 이용해 왔다. (...)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프랑스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현실의 프랑스 여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이 벌인 구체적인 정치 투쟁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프랑스 페미니즘을 이국적인 것으로, 심지어 에로틱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그러고 나선 그것의 문맥을 훼손시키고 이용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틴 델피 역시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이 자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미국 여성학계가 전략적으로 프랑스 페미니즘을 타

46) *Ibid.,* p. 27.
47) *Ibid..*

자화한 결과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48]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델피는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지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 즉 세 번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현대 페미니즘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역설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택한 일종의 '자기방어적' 전략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페미니즘이 처한 역설은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여성의 특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가부장제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페미니즘적 논의가 오히려 가부장제가 지지해 온 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게 된 상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델피에 따르면 제국주의적 태도가 프랑스 페미니즘에 접근하는 "방식 means"상에서 드러난 문제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보다 "궁극적인 목적 the ultimate ends"은 바로 이러한 역설에 직면하여 본질주의적 노선을 선택한 결과 받게 될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9]

> It is impossible to deny the charge of imperialism: imperialism indeed made the consturction of "French feminism" possible. It is equally impossible to deny that the wish to evade responsibility for one's theories is at work here. I think that the "agents", as Ezekiel calls them, of "French Feminism" wanted to present certain theories as "French" in order that the prestige accruing to what is foreign in intellectual circles, and especially to what is "French," would accrue to that position, and

48) "And why are French authors – male or female, feminist or not – almost never compared to their Anglo-American counterparts, however similar, but only to other French writers, however different? Because that would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 among them, on the one hand, and similarities between them and their commentators or translators in te Anglo-American world, on the other. Internal homogenization and external differentiation: this is how groups – national, ethnic, sexual – are constitued. In exactly the same way, French authors are seen as a group which is defined by, and only by, its difference to the group which has the power to name, thus they are constituted as an Other.", Delphy, *op.cit.,* p. 214.

49) *Ibid.,* p. 193.

> in order to be able to distance themselves from, and not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ideas they were defending, as they could always take the stand that they were merely introducing Anglo-Americans to foreign ideas. An added benefit they could expect was that their pretension that these ideas are "feminist" would not be questioned.[50]
> 실제로 제국주의가 "프렌치 페미니즘"의 형성을 가능케 만들었기에 제국주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누군가의 이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에즈키엘이 명명한 바 있는, 소위 "프렌치 페미니즘"의 "중개인"들이, 지식인 사회에서 낯선 것, 특히 "프랑스적"인 것이 누리고 있는 명망이 프렌치 페미니즘을 대하는 태도 안에 축적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속에,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상들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그것들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을 스스로 면하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몇몇 이론들을 "프랑스적"인 것으로 소개하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마치 자신들이 단지 영미권에 외국 사상을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언제나 고수할 수 있다는 듯 말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그들은 이 사상들이 페미니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발언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을 수 있는 이득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델피는 미국 여성학계에 의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은 "해석 construction"의 수준을 넘어선, "창작 invention"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라고 단언한다.[51] 이에 대한 근거로 델피는 80년대의 미국 여성학계가 크리스테바나 식수, 이리가레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기 보다는 성차를 강조하는 맥락을 지닌 부분만을 발췌해서 소개하거나, 그들의 텍스트를 그 자체로 소개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의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50) *Ibid.,* pp. 192-193.
51) *Ibid.,* pp. 193-194.

텍스트를 읽어나가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52]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프랑스 페미니즘 = 차이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이라는 등식을 의도적으로 확립시켰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본질주의적 노선을 택한 자신들의 현실을 정당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미국 여성학계는 정보 부족에 따른 무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롭게 직면하게 된 역설 앞에서 자신들이 택한 페미니즘 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프랑스 페미니즘의 실체와 너무나 다른 '프렌치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델피의 말을 빌려 함축적으로 표현해보자면,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if the "French" can do it, why can't we?"[53]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미국 여성학계가 타문화를 배타주의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이용한 결과 탄생했던 것이 바로 '프렌치 페미니즘'이었던 것이다.

3. 결 론

지금까지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MLF 내의 분쟁을 계기로 진행된 프랑스 내에서의 MLF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 미국을 거치면서 어떻게 MLF를 넘어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 전체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국 여성학계에 의한 프랑스 페미니즘의 왜곡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발휘하고 있는 커다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국제 여성학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미국 여성학계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탄생시킨 '프렌치 페미니즘'을 프랑스 페미니즘의 전부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한국 학계의 접근 방식은

52) *Ibid.*, pp. 196-197.
53) *Ibid.,* p. 220.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68혁명이 MLF의 탄생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몇몇 연구물을 제외하고 – 그러나 이들 대부분 역시 MLF의 성과를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을 뿐 MLF 내의 분쟁에 주목하거나 그러한 분쟁이 8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노선 변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방법론으로 삼아 문화 현상 또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물 대부분이 크리스테바, 식수, 이리가레 삼인방의 사상을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주요 담론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유물론적 사상에 대한 논의는 국내 학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그 결과 미국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프랑스 페미니즘 = 차이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이라는 등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국내의 이해를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나아가 프랑스 페미니즘을 둘러싼 1980년대의 외적 상황에 주목한 본 연구는 우리에게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후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를 기점으로 프랑스 페미니즘이 맞이하게 된 내적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그것일 것이다. 프랑스 여성운동이 70년대의 내적 분쟁을 거쳐 80년대 이후 어떤 방향 속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비단 프랑스 페미니즘의 역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21세기 현재, 프랑스 페미니즘이 직면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왜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프랑스 페미니즘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했던 미국 여성학계의 시도를 막아내지 못했는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 역시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조앤 W. 스콧, 공임순·이화진·최영석 역,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 앨피, 2006.

Allwood, Gill, *French Feminism : Gender and violence in contemporary theory,* UCL Press, 1998. Print.

Burke, Carolyn Greenstein , “Report from Paris : Women’s Writing and the Women’s Movement”, dans *Signs,* 3.1 (1978): pp.843-855.

Delphy, Christine, “The invention of French Feminism : An Essential Move”, *Yale French Studies - Another Look, Another Woman : Retranslations of*

French Feminism, 87. Yale University Press, 1995: pp. 190-221.

Marks, Elaine, “Women and Literature in France”, dans Signs, 3.4(1978): pp. 832-842.

Moi, Toril, *Sexual/Textual Politics,* Routledge, 1988(1985).

Moses, Claire, “Made in America : ‘French Feminism’ in United States Academic Discourse”, dans *Australian Feminst Studies,* 11.23. (1996), pp.17-31.

New French Feminism, edited and with introd. by Elaine Marks and Isabelle de Conurtivr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0.

The Future of difference, edited by Hester Eisenstein and Alice Jardine, G.K. Hall, 1980.

French Connections : voices from the women's movement in France, edited and translated by Claire Duche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7.

Beauvoir, Simone de, La Force des choses, Gallimard, 1963.

Picq, Françoise, *Libération des femmes: Les années-Mouvement,* Seuil, 1993.

Remy, Monique, *Histoire des mouvements de femmes : de l’utopie à l’intégration,*

l’Harmattan, coll. ≪ Logiques sociales ≫, 1990.

Rodgers, Catherine, Le Deuxième sexe de *Simone de Beauvoir : un héritage admiré*

et contesté, L'Harmattan, coll. ≪ Bibliothèque du féminisme ≫, 1998.
Histoire des femmes en Occident V : Le XXe siècle, édité par Georges Duby et Michelle Perrot, Plon, 1992.

〈Abstract〉

The reality of contemporary french feminist (1)

- Around birth and diffusion of french feminism invented in US

Cho Rong KANG
(Seoul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feminism, french feminism takes an important status. What is interesting however is that, for most french feminists, this reality can not be accepted uncritically. Moreover, they do not hesitate to affirm that the french feminism, which deals with importance in the feminist discourse today is not their own feminism. According to them, the concept of french feminism, which is recognized everywhere in the world, is only a result produced by the anglophone feminists, which does not take at all into account the full context of feminism in France. In this context, they claim forcefully the need to distinguish the french feminism developed by themselves of the feminism invented by the anglophone feminist, that is to say, of the 'french feminism'. Our study, based on the basic agreement with questioning of this reality of french feminists, is primarily to examine the process in which the french feminism came to deform, revive and spread by anglophone feminists, and, moreover, to understand the reasons for this situation. It is for us to question how they 'represent' the french feminism; well, we will suspend the judgment on the rightness of their perspective on feminism or concrete context of their discourse.

The first occasion of this situation is given by an internal crisis of the french feminist society: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cipants in the MLF, which refers to the collective political struggle of french women in 1970 whose claim is truly to deconstruct the patriarchal system. The conflict stemmed from the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positions about the priority to lead the struggle, between a group called ≪Psych and Po≫ and other participants of MLF. ≪Psych and Po≫ differs mainly clear from other participants in his major way to struggle against patriarchal system : for the latter, the women's movement must concentrate in a struggle against the social system, because the subordination of women is essentially the result of social condition. On the other side, ≪Psych and Po≫ claimed that the symbolic system must be subverted first, since it is the most responsible for the oppression of woman. In this position, the group developed the necessary theories for discourses on the subversion of symbolic system of patriarchy. However, it is not this difference itself that caused the conflict in MLF; one can find the determining factor in the mistaken ambition of this group, who wanted to present itself as the political and intellectual center of the MLF by appropriating the history and struggles of MLF. Indeed, he put this ambition into practice by appropriating the right to speak of MLF through his organizational strength and influence on publishing market. Finally, this attempt has arrived with the result that the groupe has succeeded to legally gain the exclusive property on the name MLF in 1979.

The alteration of french feminism, started by this inner conflict, arrives to worsen in the process where it was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feminist academy, interested in the new french feminism since 1968, began to introduce it to american readers, but under the perspective of ≪Psych and Po≫. Therefore, in the United States, the prospect that the new french feminism is not anything other than the idea of this group was installed. It was defined as an idea that prefers the theory to practice, the Lacan's psychoanalysis to materialism, literary and philosophical discourses to the social and historical. And in this context, they confered the title of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feminism on ≪Psych et Po≫ and the trio, Julia Kristeva, Hélène Cixous and Luce Irigaray, who in that time in France, were not even considered as feminist.

When we consider that they knew already the conflict between french feminists and that a certain regularity was revealed in their way to deform the french feminism, this situation must be considered as a result produced by their intention to remake the french feminism according their own need. If it was, why did they invent the french feminism? We can answer this question according to three factors. First, the hegemony of literature who took the lead in american women's studies, second, the imperialism of american feminists who wanted to appropriate a part of french culture for their purpose, and, finally, their desire to escape criticism on their choice for a return to essentialism by using the french feminism. And today, through this process, the diversity of discourses developed by french feminist happens to hardly be noticed in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society.

Key words: french feminism, french feminism invented in US, Mouvement de Libération des Femmes(MLF), Psych and Po, paradoxe of feminism, essentialism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 - 12.5** / 게재확정일 : 12.**10**